

보도자료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1월 29일(화)

□ 담당자 : 남정수(010-6878-3064), 안진걸(010-2279-4251)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bisang2016

밤새 했다는 고민이 기만과 꼼수인가 몸통은 박근혜다 즉각 퇴진하라

오늘 오후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됐다. 스스로 담화문 첫머리에 말했던 것처럼, 결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풀 수 없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밤을 지새우며 했다는 고민은 결국 또다시 국민에 대한 기만과 꼼수에 불과했다.

박근혜가 중대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은 온국민이 알고 있다. 그것도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범이자 공범이다. 그러나 오늘 담화에서 박근혜는 그 모든 범죄행위와 의혹들이 “공적인 사업”이었으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수 정도로 치부했다. 이전부터 유명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측근의 일탈이라고 변명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조사조차 거부하면서 뻔뻔스럽게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오늘 담화에서 밝힌 거취에 대한 입장은 결국 지난 한 달 간 광장에서 백만, 이백만 촛불이 외치고 전국민적으로 요구했던 즉각퇴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적 퇴진여론이 불붙자 최근에는 친박계도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측근실세는 물론 재벌들과 결탁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범죄정권의 명예를 보장할 생각도 없으며 단 하루의 임기라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담화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즉각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합성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며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담화문의 내용은 시간끌기를 위한 기만일 뿐이었다. 박근혜가 시간을 벌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증거인멸과 은폐, 그리고 자신의 퇴진 후 입지를 보장해줄 정권창출에 골몰할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끌기가 아니라 즉각퇴진과 강제수사일 뿐이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물타기를 하고 향후의 수사 및 정치권 합의에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우리는 박근혜의 변명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늘 저녁 박근혜 즉각퇴진 긴급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내일 1차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으로 청와대를 향해 직접 규탄과 퇴진의 합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 기 예정된 6차 범국민행동은 그 명칭부터 변경해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기만적인 담화에 분노한 더 많은 민중과 함께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박근혜의 거취는 이미 국민이 결정했다. 국민이 결정한 일정은 밤새워 고민할 시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이 총체적 범죄정권의 총책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